

# 2024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경 위 직

제 1 과목 : 국 어  
제 2 과목 : 영 어  
제 3 과목 : 헌 법  
제 4 과목 : 한 국 사  
제 5 과목 : 행 정 법 총 론

○ 응시번호 :  
○ 성 명 :

### 시험 시간 및 향후 일정 안내

- ❖ 시험 시간: 14:00 ~ 15:40
- ❖ 정답 가안 발표: 2024. 8. 10.(토) 18:00
- ❖ 정답 이의제기: 2024. 8. 12.(월) 09:00 ~ 8. 13.(화) 17:00
-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24. 9. 6.(금), 국회채용시스템

## 국 회 사 무 처

국회채용시스템 : <http://gosi.assembly.go.kr>

국 어

1. 로마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종로: Jongno
- ② 백마: Baengma
- ③ 학여울: Hagyeoul
- ④ 신문로: Sinmunno
- ⑤ 왕십리: Wangsimni

2. 한자성어의 뜻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九曲肝腸: 깊은 마음속 또는 시름이 쌓인 마음속을 이름.
- ② 讀書三昧: 다른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오직 책 읽기에만 몰두함.
- ③ 磨斧爲針: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음.
- ④ 臥薪嘗膽: 원수를 갚으려고 온갖 괴로움을 참고 견딤.
- ⑤ 兔死狗烹: 방자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김.

3.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비행시에는 휴대폰을 꺼 두시기 바랍니다.
- ② 정부가 그 동안 준비해 왔던 대책을 발표했다.
- ③ 매년 총 매출액의 1%씩 기부하기로 하였습니다.
- ④ 8월 1일 자 신문에 제가 쓴 글을 한 편 실었습니다.
- ⑤ 인터넷 상에 공개된 정보라도 함부로 활용할 수 없다.

4. 표준어로만 묶인 것은?

- ① 뵈다, 헛갈리다, 가엾다, 열두째
- ② 뵈다, 헛갈리다, 가엾다, 열두째
- ③ 뵈다, 섞갈리다, 가엾다, 열둘째
- ④ 뵈다, 헛갈리다, 가엾다, 열둘째
- ⑤ 뵈다, 헛갈리다, 가여웁다, 열두째

5. 다음 ㉠,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고무줄을 ( ㉠ ).
- 바짓단을 ( ㉡ ).

	㉠	㉡
①	늘이다	늘리다
②	늘이다	늘이다
③	늘리다	늘이다
④	늘리다	늘리다
⑤	늘리다	넓히다

6.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들 모이셨나요? 안녕들 하세요?

- ① ‘들판’에 쓰인 ‘들’처럼 명사로 쓰였다.
- ②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 ③ 열거한 사물 모두를 가리키는 의존명사로 쓰였다.
- ④ ‘너희들’의 ‘들’처럼 복수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 ⑤ ‘들쭉시다’라는 단어에서 쓰인 것처럼 접두사로 쓰였다.

7. 한글 맞춤법에 맞는 것은?

- ① 반짓고리
- ② 사흘날
- ③ 삼짓날
- ④ 이틀날
- ⑤ 폰소

8. ㉠~㉣ 중 <보기>의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곳은?

< 보 기 >

그러므로 어떤 종류의 일탈과 어떤 형태의 다름이 소속이나 존중이나 인정과 관련해 유의미한 것으로 제시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표준에 부합하는 사람은 표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 ( ㉠ ) 다수와 비슷한 속성을 지닌 사람은 표준을 규정하는 다수와 닮았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착각할 수 있다. ( ㉡ ) 표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배제하거나 비하하는지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이 용인되는 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힘을 행사하는지 감도 잡지 못한다. ( ㉢ ) 하지만 인권이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자신과 유사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 ㉣ ) 또한 표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배제되고 멸시당하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한다. ( ㉤ ) 자신에게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을 하는 이들의 감정에 이입해 보아야 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9.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소리가 음운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최소 대립쌍(minimal pair)을 찾아보는 것이 편리하다. 최소 대립쌍이란 오로지 같은 자리에 오는 하나의 음운만 차이가 남으로써 그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쌍을 말한다. 최소 대립쌍을 만들어 주는 두 소리는 모두 별개의 음운에 속한다.

최소 대립쌍을 설정할 때 주의해야 할 기준으로 ‘양적 대등성’과 ‘질적 대등성’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양적 대등성’은 최소 대립쌍을 이루는 두 단어의 음운 개수가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이고, ‘질적 대등성’은 최소 대립쌍을 만드는 두 소리의 성질이 동일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 ① ‘고리’와 ‘오리’는 2음절로 이루어진 최소 대립쌍이다.
- ② ‘일’과 ‘길’은 양적 대등성의 조건에서 볼 때 최소 대립쌍이 아니다.
- ③ ‘사이’와 ‘살’은 질적 대등성의 조건에서 볼 때 최소 대립쌍이 아니다.
- ④ ‘물’과 ‘불’은 하나의 음운만 차이가 남으로써 그 뜻이 구별되는 최소 대립쌍이다.
- ⑤ ‘ㅂ’과 ‘ㅎ’을 별개의 음운으로 설명하는 최소 대립쌍의 예로 ‘박’과 ‘학’을 들 수 있다.

10. ㉠과 ㉡의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같지 않은 것은?

㉠

㉡

- |                            |                                   |
|----------------------------|-----------------------------------|
| ① <u>맛난</u> 음식을 사 먹자.      | 그 친구를 <u>만난</u> 것이 언제였지?          |
| ② 오늘 하늘이 참 <u>맑다</u> .     | 태풍에 <u>쓰러진</u> 나무가 길을 <u>막다</u> . |
| ③ <u>흙을 밟고</u> 다니지 마라.     | 조명이 <u>밝고</u> 실내가 화사하다.           |
| ④ 언제 이 일을 <u>할는지</u> 모르겠다. | 강아지가 왜 이리 <u>싫는지</u> 모르겠다.        |
| ⑤ 이 책을 아직 다 <u>읽지</u> 못했다. | 고구마가 <u>꼭 익지</u> 않았다.             |

11. 다음 글의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과학적 설명이 어떻게 특별할까요? 철학자 칼 험펠(Carl G. Hempel)이 설명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최초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설명하는 것을 설명항이라 부르고, 설명되는 것을 피설명항이라고 부릅니다. 그에 따르면, 설명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 ㉠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설명하는 것과 설명되는 것이 적절하게 관계를 맺어야 하고(설명적 유관성 조건), 두 번째는 설명항 자체가 시험될 수 있어야 합니다(시험가능성 조건).

(중략)

시험 가능성 조건이란 설명항이 시험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증도 안 되고 ( ㉡ )도 안 되는 그런 것, 예를 들어 물 속에 막대를 넣을 때마다 악마가 조작하는 거라는 설명항은 시험이 안 되기 때문에 설명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시험 가능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철학자 칼 포퍼(Karl Popper)의 통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머리색은 검다고 주장했다면 동시에 머리색이 빨간색이나 노란색이나 흰색이 아니라는 주장을 동시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장은 다른 주장을 ( ㉢ )함으로써 동시에 성립합니다. 즉 어떤 모순되는 관찰도 할 수 없는 주장이라는 얘기는 이 세계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는 것으로, 경험적 내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경험적 내용이 있는 이 세계에 대한 주장을 하려면 뭔가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   | ㉠  |   | ㉡  |   | ㉢  |
|---|----|---|----|---|----|
| ① | 제시 | - | 반증 | - | 배척 |
| ② | 만족 | - | 반증 | - | 기각 |
| ③ | 만족 | - | 수정 | - | 배척 |
| ④ | 확인 | - | 수정 | - | 기각 |
| ⑤ | 확인 | - | 방증 | - | 기각 |

12. 다음 글을 이해한 것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설(J. Searle)은 의미의 소재를 언어와 실재의 대응 관계에서 찾으려는 20세기 초의 언어철학적 가정을 거부하고, 의미의 원천을 우리의 마음의 특성인 ‘지향성’에서 찾으려고 시도함으로써 의미 탐구의 장을 새로운 곳으로 옮겨 왔다. 의미의 소재를 언어와 세계 사이의 고정된 관계가 아니라, 언어와 언어 사용자 사이의 유동적 관계 속에서 찾으려는 이러한 화용론적 전환은 비트겐슈타인(L. Wittgenstein)의 후기 철학을 통해서 이미 그 윤곽을 선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설은 지향성 개념을 통해 이러한 전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미의 형성과 구조에 관해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해명을 시도하고 있다.

설의 중심적인 언어철학적 관심사는 소리나 문자와 같은 물리적 기호가 어떻게 의미를 갖게 되는지, 나아가 물리적 기호가 어떤 방식으로 세계와 관계를 맺게 되는지를 밝히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설은 의사 소통의 기본 단위인 ‘화행(speech act)’을 일차적인 탐구 과제로 설정한다. 설이 지적하는 것처럼 화행은 일종의 행위다. 따라서 행위로서의 화행의 분석은 단순히 명제적 기호들의 체계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수행될 수 없으며, 이에 수반되는 마음의 작용에 대한 탐구를 요구한다.

(중략)

나아가 설의 이러한 주장은 언어철학적 탐구의 새로운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즉, 그것은 명제적 기호들의 결합으로서의 언어에 대한 탐구가 우리의 사고와 경험의 모든 것을 밝혀 줄 수 있으리라는 초기 분석철학의 낙관적 가정으로부터의 대폭적인 후퇴를 의미한다.

의미에 관한 설의 해명의 중요한 계기를 이루고 있는 것은 문장 의미가 실제적인 소통 의미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의사 소통에서 사용하는 의미의 선택에는 문장 의미 이외의 중요한 요소들이 개입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 문제에 대한 설의 답변이 바로 지향성 이론의 핵심적 골격을 이루고 있는 ‘네트워크(Network)’와 ‘배경(Back-ground)’이다. 네트워크는 하나의 지향적 상태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련의 지향적 상태들의 집합이다. 특정한 지향적 상태는 바로 이 네트워크와의 상관성 속에서 적절한 의미를 형성한다. 한편, 설은 그 자체로는 지향적 상태는 아니지만 지향적 상태들을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능력들 또는 전제들이 존재한다고 보는데, 그것을 한데 묶어 ‘배경’이라고 부른다. 배경이란 지향성을 가능하게 하는 궁극적 지반으로서의 ‘능력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지향적 상태의 의미는 네트워크와 배경의 복합적인 관련성 속에서 구성된다. 이러한 설의 이론은 단일한 기호가 세계와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고유한 ‘문자적 의미’를 얻는다는 고전적 의미 이론과의 결별을 의미한다.

< 보 기 >

- ㄱ. 고전적 의미 이론에서는 화행을 일차적 탐구 과제로 생각하지 않았군.
- ㄴ.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은 의미를 언어와 실재의 대응 관계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았군.
- ㄷ. 설은 화행의 분석이 명제를 구성하는 기호 체계의 연구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보았군.
- ㄹ. 고전적 의미 이론에서는 문장 의미 이외의 요소인 네트워크나 배경을 중시하지 않았군.
- ㅁ. 배경이 지향적 상태들을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능력들이라면 배경도 지향적 상태의 하나겠군.

- ① ㄱ, ㄴ, ㅁ
- ② ㄱ, ㄷ, ㄹ
- ③ ㄴ, ㄷ, ㄹ
- ④ ㄴ, ㄷ, ㅁ
- ⑤ ㄷ, ㄹ, ㅁ

13.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사진의 발명으로부터 200년이 채 안 되고 영화의 발명으로부터 100년이 조금 넘는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뿐이지만, 이후 토끼, 컬러 필름 등의 발명으로 영화는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또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텔레비전, 비디오 등이 발명되어 대중들은 개인적인 공간에서 언제나 자유롭게 영화를 감상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20세기 말에 비약적으로 발전한 컴퓨터와 인터넷의 영향으로 등장한 새로운 매체 환경에서 이미지는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대중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온다.

새로운 매체가 지닌 새로운 전달 방식은 단순한 이미지의 소비자였던 대중들을 이미지를 소비하면서 동시에 생산에 참여하는 작동자[prosumer(producer+consumer)]가 될 수 있게 했다. 소비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언제 어디서든 정보를 검색하고 이미지를 향유할 수 있는 진정한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이 이루어져 이미지는 더욱 우리들 가까이에 다가와 있다. 현대인들은 극장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각자의 방에서 컴퓨터로 영상을 검색하고,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들여다본다. 현대인은 인류 역사의 어느 시기보다 이미지가 과잉된 시대에 이미지 속에 함몰되어 그것을 향유하고 창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 ① 새로운 매체로 인해 대중들은 작동자가 되었다.
- ② 과학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매체 환경이 만들어졌다.
- ③ 사진보다 영화의 탄생이 더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 ④ 이미지 소비자였던 대중은 이미지를 창조하며 살아가고 있다.
- ⑤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대중들은 이미지 과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 14.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스키마란 대상과 사건의 규칙성을 포착하는 지식의 구조를 말하는데, 이를 글 읽기에 적용하면 독자의 머릿속에 있는 스키마의 항목에 맞추며 글의 의미를 파악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즉, 글의 내용에 대한 적절한 스키마가 있으면 글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글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글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바로 독자의 머릿속에 있는 스키마라고 보는 관점이다.

- ① 이 이론에 따르면 글에 담긴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수록 읽기에 능숙한 독자라고 볼 수 있다.
- ② 이 이론은 글의 의미는 글 속에 담겨 있는 것이라기보다 독자가 구성해야 하는 것임을 알려 준다.
- ③ 이 이론에 따르면 글에 대하여 서로 다른 스키마가 적용될 때 글의 의미가 다르게 이해된다고 볼 수 있다.
- ④ 이러한 시각에서는 독해의 과정에 선행 지식이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게 하는 읽기 지도를 강조할 것이다.
- ⑤ 이 이론을 확대 적용하면 아는 것은 더 잘 알게 되지만 모르는 것은 계속 잘 모른다는 논리도 가능할 것이다.

## 15.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뇌어보지만  
집 뒤 감나무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 소리도 그려 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볼에 와 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네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네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 신경림, 「가난한 사랑 노래」 -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②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호소력을 더하고 있다.
- ③ 동일한 구문을 사용하여 운율을 조성하고 있다.
- ④ 가난으로 인해 겪어야 하는 삶의 고난이 나타나 있다.
- ⑤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 16. (가)~(마)를 문맥에 맞게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가) 이러한 움직임을 이끌어 간 것은 서경덕(徐敬德), 이언적(李彦迪), 이황(李滉), 조식(曹植), 김인후(金麟厚), 기대승(奇大升), 성혼(成渾), 이이(李珣) 등 명망이 높았던 선비들이었다.
- (나) 이에 선비들은 정치 참여를 포기하고 산간 전야로 몸을 피하여 오로지 학문에만 힘쓰며, 뜻이 맞는 동료들과 자주 강학회를 가지면서 후진을 가르치기에 이르렀다.
- (다) 서원이 참교육의 장으로서 각광을 받게 된 데에는 16세기의 사화(士禍)가 큰 계기가 되었다.
- (라) 그들은 향촌의 유생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며 거리를 헤아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와 배움을 청하게 되니, 자연히 명망이 높은 선비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배움의 장으로서 주목되었다.
- (마) 향촌에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던 선비들이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정치에의 참여를 시도하였으나, 그들은 당시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훈구 세력과 충돌했고 되풀이되는 사화 속에서 심한 타격을 입었다. 많은 선비들이 잡혀 죽거나 변방으로 귀양갔다.

- ① (다) → (가) → (마) → (나) → (라)
- ② (다) → (나) → (마) → (라) → (가)
- ③ (다) → (마) → (나) → (가) → (라)
- ④ (마) → (나) → (가) → (라) → (다)
- ⑤ (마) → (나) → (라) → (다) → (가)

## 17.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달배 바회 굵히  
자박온 손 암쇼 노히시고  
나흘 안디 붓헝리샤든  
꽃홀 것가 받즈보리이다

- 지은이 모름, 「헌화가」 -

- ① 고려 전기부터 조선시대까지 창작되었다.
- ② 향찰로 표기된 우리나라 고유의 시가이다.
- ③ 강호에서의 조화로운 삶을 노래하고 있다.
- ④ 3·4조의 음수율과 3장 6구 형식으로 되어 있다.
- ⑤ 유학자들의 정신과 정서를 표출하기에 적합한 형식이다.

## 18.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

우리가 구장님을 찾아갔을 때 그는 싸리문 밖에 있는 돼지우리에서 죽을 퍼주고 있었다.

서울엘 좀 갔다 오더니 사람은 점잖아야 한다고 윗수염이(얼른 보면 지붕 위에 앉은 제비 꼬랑지 같다.) 양쪽을 뽀족이 뻗치고 그걸 ‘에헴!’ 하고 늘 쓰다듬는 손버릇이 있다. 우리를 멀뚱히 쳐다보고 미리 알아챘는지,

“왜 일들 허다 말구 그래?” 하더니 손을 올려서 그 ‘에헴!’을 한번 후딱 했다.

“구장님! 우리 장인님과 춤에 계약하기를…….”

먼저 덤비는 장인님을 뒤로 떠다밀고 내가 허둥지둥 달려들다가 가만히 생각하고,

“아니 우리 빙장님과 춤에.” 하고 첫번부터 다시 말을 고쳤다.

장인님은 빙장님 해야 좋아하고 밖에 나와서 장인님 하면 팬스레 골을 내려 든다. 뱀두 뱀이라야 좋으냐구 창피스러우니 남 듣는 데는 제발 빙장님, 빙모님, 하라구 일상 당조짐을 받아 오면서 난 그것도 자꾸 잊는다. 당장도 장인님 하다 옆에서 내 발등을 꼭 밟고 결눈질을 흘기는 바람에야 겨우 알았지만…….

구장님도 내 이야기를 자세히 듣더니 펍 딱한 모양이었다. 하기가 구장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럴 게다. 길게 길러 둔 새끼손톱으로 코를 후벼서 저리 탁 튀기며,

“그럼 봉필 씨! 얼른 성례를 시켜 주구려, 그렇게까지 제가 하구 싶다는 걸…….” 하고 내 짐작대로 말했다. 그러나 이 말에 장인님은 샷대질로 눈을 부라리고,

“아 성례구 뭐구 계집애년이 미쳐 자라야 할 게 아닌가?” 하니까 고만 멀쭉룩해서 입맛만 짹짹 다실 뿐이 아닌가.

“그것두 그래!”

“그래, 거진 사 년 동안에도 안 자랐다니 그 킨 언제 자라지유? 다 그만두구 사경 내슈…….”

“글쎄, 이 자식아! 내가 크질 말라구 그랬니, 왜 날 보구 떴냐?”

“빙모님은 참새만 한 것이 그럼 어떻게 앨 낳지유?(사실 장모님은 점순이보다도 귀때기 하나가 작다.)”

장인님은 이 말을 듣고 꺄꺄 웃더니(그러나 암만해두 돌 씹은 상이다.) 코를 푸는 척하고 날 은근히 굶리려고 팔꿈치로 옆 갈비뼈를 퍽 치는 것이다. 더럽다. 나도 종아리의 파리를 쫓는 척하고 허리를 구부리며 그 궁둥이를 콕 때밀었다. 장인님은 앞으로 우쭐근하고 싸리문께로 쓰러질 듯하다 몸을 바로 고치더니 눈총을 몹시 쏘았다. 이런 상년의 자식! 하곤 싶으나 남의 앞이라서 차마 못 하고 섰는 그 꼴이 보기에 퍽 쟁그러웠다.

- 김유정, 「봄봄」에서 -

- ① ‘나’는 ‘장인님’의 태도에 불만이 없다.
- ② ‘장인님’은 ‘구장님’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 ③ ‘구장님’은 ‘장인님’의 의견에 반대하고 있다.
- ④ ‘장인님’은 ‘나’의 반론을 듣고 난처해하고 있다.
- ⑤ ‘나’는 ‘장인님’에게 성례를 미룰 것을 요청하고 있다.

## 19.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風霜이 섰거 친 날에 궂 픽은 黃菊花를

金盆에 7득 담아 玉堂에 보니오니,

桃李야, 궂이온 양 마라, 님의 뜻을 알괘라.

- 송순, 「自上特賜黃菊玉堂歌」 -

- ① ‘風霜’은 바람과 서리로서 시련을 의미한다.
- ② ‘黃菊花’는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신하를 비유한다.
- ③ ‘金盆’은 임금의 자애로운 마음을 보여 준다.
- ④ ‘玉堂’은 임금이 머무는 처소를 의미한다.
- ⑤ ‘桃李’는 임금에게 교언영색하는 존재를 비유한다.

## 20. 사이시옷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양잇과
- ② 감자국
- ③ 막넛동생
- ④ 순댓국
- ⑤ 전셋방

## 영 어

※ 밑줄 친 단어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문1.~문4.]

1. The systems are often racially biased: one study found that in some commercial systems, even in lab conditions error rates in identifying darker skinned women were around 35%.

- ① objective
- ② skewed
- ③ based
- ④ impartial
- ⑤ neutral

2. The blaze spread to two adjacent buildings before firefighters were able to contain it.

- ① contiguous
- ② congenial
- ③ congenital
- ④ contagious
- ⑤ contemporary

3. In spite of continued failures, the tardy man kept on trying with endurance that was beyond belief.

- ① doggedness
- ② exuberance
- ③ munificence
- ④ compunction
- ⑤ compassion

4. Analyzing the patterns of change that words undergo, moving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showed how to unwind these changes and identify the possible originals.

- ① disembark
- ② displace
- ③ disintegrate
- ④ disconnect
- ⑤ disentangle

※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문5.~문6.]

5. Primary legislation is created through a parliamentary process which ①begins with the introduction of a bill in parliament. A bill may be introduced by the government or by an individual member of parliament. A bill might be drafted ②to reflect a government policy or manifesto commitment; it could be introduced in reaction to an event; or it could be intended to codify the common law. Before ③they are introduced, bills are normally published for consultation. To become an act, the bill needs to pass through a number of ④stages of scrutiny, debate and amendment involving parliamentary committees and both the House of Commons and the House of Lords. The bill cannot be passed until agreement on the final version ⑤reaches by both houses, then it must receive the royal assent to become an act of parliament.

6. One way that we can understand sovereignty is through imagery. Much symbolism ①is attached to things representing the authority of government and its power over its citizens, and much pageantry is associated with ②transferring power from one leader to the next. Whenever authority and power ③are transferred from one person to the next, it happens in a highly ceremonial way with great symbolic value and according to formal rituals. For example, the inauguration of a new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represents much more than merely ④pass the gavel. Indeed, the head of state for any form of government can have multiple and substantial executive powers. These could include ⑤ being head of state (president), head of government (like a prime minister), and commander in chief of the military with the power to declare war.

## 7. 어법상 옳지 않은 문장은?

- ① When the signal being given, we started running at full speed.
- ② If he didn't post bad message on the Internet, he wouldn't be in trouble now.
- ③ Any regrets I had about spending so many years awaiting his return vanished.
- ④ Having finished his work, he played with fishing tackle in his warehouse.
- ⑤ Life is seldom as exciting as we think it ought to be.

##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The architecture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from the middle years of the eighteenth century to the last of the nineteenth, is best identified as Romantic. A variety of terms have been coined to mark subdivisions of this period's stylistic attitudes, but always adding the designation of a previous style of architecture. From the start of the Renaissance to World War II, the dominant stylistic theme in architecture was a reliance on the past, the extent of historical accuracy varying. Until the middle of the eighteenth century, European designers, both Renaissance and Baroque, adapted ancient motifs with considerable freedom. Each of the Romantic movements responded to current ideals. Newly established representative governments echoed the forms of Greece and Rome in their buildings; and religious groups, according to their outlooks, chose between the perceived rationality of classical styles and the emotionalism of Gothic.

- ① 산업 혁명 시기의 건축은 낭만주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산업 혁명 시기의 건축 양식을 세분화하기 위해 다양한 용어가 새롭게 나타났다.
- ③ 르네상스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건축 양식의 주제는 과거 양식에 영향을 받았다.
- ④ 18세기 중반까지 유럽의 건축설계사는 고대 디자인을 엄격하게 적용하였다.
- ⑤ 새롭게 구성된 정부는 그들의 건물에 그리스와 로마의 양식을 반영하였다.

## 9.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All of the terms added to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OED) in April, in an unscheduled update, were related to the pandemic in some way, including 'infodemic' and 'elbow bump'. But McPherson notes that the only actual new word added to the dictionary is 'Covid-19'. The others are pre-existing terms that have gained new resonance at a time when many people are subject to a 'stay-at-home order' (US), 'movement control order' (Malaysia) or 'enhanced community quarantine' (Philippines). "Although a lot of the words we're using just now and a lot of the terminology is actually older, a lot of it seems fairly new. 'Coronavirus' itself goes back to the 1960s," she points out.

- ① 'Coronavirus'는 21세기에 만들어진 용어이다.
- ② OED는 정기적인 일정에 따라 4월에 새로운 용어들을 등재하였다.
- ③ 'stay-at-home order'는 필리핀에서 사용한 용어이다.
- ④ 'elbow bump'는 대유행병과 연관된 용어로 OED에 등재되었다.
- ⑤ 대유행병과 관련해 등재된 모든 용어는 새롭게 만들어졌다.

## 10. 다음 글의 요지로 적절한 것은?

Children don't have some secret mechanism that allows them to learn language, Dr. Lichtman explained. Their ability to "learn better" comes from the amount of time they're exposed to the language — though how much time it takes is still up for debate. In contrast, adults can piece together the rules of a language more quickly than children because they have more mature puzzle-solving skills and are better at understanding rules and patterns. They have more knowledge about how language works, better study skills and generally have more mature cognitive abilities. But that kind of learning only goes so far. Even if an adult becomes fluent, they'll always carry a telltale accent. It's a sign that certain elements of language can never fully penetrate the adult brain.

- ①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방식은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된다.
- ② 아이들이 성인보다 언어의 작동방식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
- ③ 학습 대상 언어에 얼마나 노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견은 없다.
- ④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언어 규칙과 패턴을 잘 이해하여 빠르게 언어를 습득한다.
- ⑤ 성인은 아이들에 비해 언어학습에 많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발음상 한계를 지닌다.



※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문11.~문12.]

11. It is time ①to require a surgeon general's warning label on social media platforms, ②stating that social media is associated with ③significant mental health harms for adolescents. A surgeon general's warning label, which requires congressional action, ④would remind parents and adolescents that social media has not been proven ⑤safely.

12. This environment ①hostile to the diversity of thought through social pressure goes against ②that my generation should be looking for at this point in their lives, ③which is an environment ④where you can be exposed to a wide array of ideas ⑤without fear of social retaliation.

13.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 elevator system operated by water was patented in 1870 by Cyrus Baldwin, a Boston engineer. In Baldwin's elevator, the car was suspended by cables that ran over pulleys to a large iron bucket that weighed slightly ①less than the car. The bucket, traveling in a shaft beside that of the elevator, would be filled with water, and as the bucket ②descended, the car and its passengers were drawn upward. As the bucket was ③filled and rose from the bottom of its shaft, the car would descend. The only driving force required was a steam-powered pump to transfer water from the building's basement to a rooftop tank. Stops were made by applying ④pressure to the guide rails, and in most installations, the springs that braked the car were so strong that the car probably moved ⑤more by the release of the braking systems than by control of the water balance system.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The complex spatial network of Venice is somewhat hard to master and represent, as many nonnatives discover when visiting the town. ①Repeated visits and strolls through the city provide some comfort because individuals improve their mental representation of and their ability to navigate Venice. ②And yet, a sense of disorientation remains as the individual moves through the city. ③Commercial maps of Venice are typically hard to decipher, and many are not even accurate at a level that matters for pedestrian navigation. ④The city is known for its beautiful canals and historic architecture, attracting millions of tourists each year. ⑤The irregular shape of the city, its sheer size, and the tortuous paths through it certainly contribute to the difficulty. A complex numbering address system creates further confusion.

15. 밑줄 친 (A)와 (B)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Until the 1880s, government was reasonably small, with few services provided to the public. However, as demands for government services increased, so did calls for making government workers more accountable for providing services efficiently — just like for-profit organizations. (A), there were calls to ensure that government workers, called civil servants, were hired based on merit. Hiring based on merit meant workers were selected based on a preestablished set of knowledge, skills, and abilities, making them eligible for hire. (B) that, many government workers got jobs through a patronage system, where a political official hired family or friends.

- |   | (A)         | (B)        |
|---|-------------|------------|
| ① | In addition | After      |
| ② | In addition | Before     |
| ③ | In contrast | After      |
| ④ | In contrast | Because of |
| ⑤ | In contrast | Before     |

## 16.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en we say we are “here,” as opposed to somewhere else, we do not mean that the center of mass of our body occupies a specific geometric point with well-defined coordinates and that we would be somewhere else as soon as we would move ever so slightly away from that point. Rather, being “here” means that we are “in a position” to do certain things such as responding to another person’s call; taking care of arising needs in a household, work, or leisure environment, making decisions about the continuation of a route, and so on. “Here” thus denotes a part of the environment, together with \_\_\_\_\_. Reporting to be “here” always has a connotation of being ready to do something, be it from the social, object, problem solving, or any other domain of behavior.

- ① the sensory experiences encountered therein
- ② the behavioral opportunities available therein
- ③ the personal memories associated in this place
- ④ the geographical features observed in this setting
- ⑤ the historical context provided in this environment

## 17. 다음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Many advancements in education have faced initial skepticism, often labeled as a potential avenue for cheating. This pattern is a natural response to any novel technology, where creating guidelines for its use becomes a priority post-invention. Right now,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not causing any dramatic chaos. However, its introduction is similar to how people first reacted to calculators or Wikipedia. Instead, educational authorities should efficiently adapt and incorporate AI into their learning frameworks. Initially, AI may seem like a straightforward tool for academic dishonesty. Especially with the introduction of ChatGPT last year, as it has the efficiency to give you a straightforward answer to assignment questions or essays. However, a closer examination reveals its distinct patterns. Several professors, even without specialized AI detection software, can identify ChatGPT-generated content.

- ① Technology regulation in education to overcome resistance
- ② Lack of response to novel technologies’ post-invention
- ③ Immediate acceptance without guidelines for use
- ④ Initial skepticism followed by efficient adaptation
- ⑤ Dramatic chaos resulting from technological innovations

## 18.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choice of ‘a’ versus ‘the’ often induces listeners to draw inferences beyond the direct meaning of the noun phrase. Compare (1) and (2):

- (1) The man had been murdered. A knife lay nearby.
- (2) The man had been murdered. The knife lay nearby.

In (1), there is no necessary implication that the knife had anything to do with the murder, but in (2), there is. Therefore, speakers select ‘a’ versus ‘the’ based on their judgment of \_\_\_\_\_. They select the head noun and its modifiers based on a judgement of the implicit array the referent belongs to and whether the referent is in the listener’s consciousness at the time. And they select the level of familiarity and formality based on judgments of social factors.

- ① what the listener implies uniquely
- ② what the listener is able to disguise
- ③ what the listener does and doesn’t know
- ④ what the speakers figure out from the entity
- ⑤ what the speakers exploit to the full in the context

## 19.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social causes of disability can be found in a number of cultural practices, social attitudes and approaches to the built environment, which seem to offer a stereotype of disabled people that depicts them as being of lesser value than someone who is not disabled or that places the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a secondary position to those of people who are not disabled. For instance, in fairy tales, in particular the tales associated with the Brothers Grimm, the evil character is often signified by means of their physical difference. Contemporary culture also links evil with \_\_\_\_\_ physical \_\_\_\_\_ difference, \_\_\_\_\_ where can denote a character’s status as a villain. While no deliberate intention may exist to associate disabled people with negative images, it is the cultural associations that are important.

- ① the presence of impairment
- ② the possession of mental strength
- ③ the display of bodily fortitude
- ④ the behavior of society
- ⑤ the absence of disability

20. 주어진 글 사이에 들어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Groups are amazing. They are more than the sum of their parts.

- (A) When learning about the outside world, groups can do better than individuals working on their own.
- (B) At one extreme, a group is just a collection of individuals, like a shoal of fish, where group behavior emerges from rules of individual behavior.
- (C) At the other extreme, a group may be a collection of individuals with shared goals and a shared view of the world.

For instance, a shoal of fish can find a source of food more accurately than a single fish; a swarm of bees can agree on the best site for a new nest.

- ① (A) - (C) - (B)
- ② (B) - (A) - (C)
- ③ (B) - (C) - (A)
- ④ (C) - (A) - (B)
- ⑤ (C) - (B) - (A)

## 헌 법

## 1.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정치자금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②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③ 헌법재판소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당 해산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④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⑤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상의 정당등록취소조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

## 2. 국회의 조직 및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② 국회는 그 의사자율권에 기초하여 의안 심의에 관한 국회운영의 원리로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③ 전원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국회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 ⑤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 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국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현행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②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 ③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을지라도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④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 4. 통신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및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해당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② 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되며,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 ③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원이 허가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제공 요청 남용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을 중간에 확보한 다음 재조합 기술을 거쳐 그 내용을 파악하는 이른바 ‘패킷감청’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회선감청은 개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 ⑤ 미결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규율위반행위 등을 이유로 금지처분을 받은 경우 금지기간 중 서신수수, 접견,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은 미결수용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5. 평등권 및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업무상 재해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포함시키는 개정 법률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조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②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라는 점이 헌법 제11조제1항 후문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고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에 대한 차별은 평등권 침해 여부의 심사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 ③ 평등원칙 위반의 특수성은 대상 법률이 정하는 '법률효과'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그 법률효과가 수범자의 한 집단에만 귀속되어 '다른 집단과 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는 점에 있기 때문에, 평등원칙의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 적용과 관련하여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집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조항은 예비후보자 및 후원회를 통해 이들을 후원하고자 하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와 배심원의 권한 및 의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 20세에 이르기까지 교육 및 경험을 쌓은 자로 하여금 배심원의 책무를 담당하도록 정한 것이므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6.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ㄴ.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제청법원이나 헌법소원 청구인이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부분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 ㄷ.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고,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위헌소원의 경우에도 같다.
- ㄹ. 헌법재판소는 위헌정당해산심판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정당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할 수 있으나,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할 수 없다.
- ㅁ.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ㅁ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ㅁ
- ⑤ ㄴ, ㄹ, ㅁ

7.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의 '위계', '직무집행', '방해'는 모두 불확실성을 지닌 용어이고, 특히 '위계'는 의미가 모호하여 일관된 해석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 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은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의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요구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정보수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ㄷ. 예시적 입법형식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시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그 자체로 일반조항의 해석을 위한 판단지침을 내포하고 있으면 족하고, 그 일반조항 자체가 그러한 구체적인 예시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ㄹ.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 중 '인터넷언론사' 및 '지지·반대'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8.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국회
- ㄴ. 각급선거관리위원회
- ㄷ. 정당
- ㄹ. 원자력안전위원회
- ㅁ. 국회 안전조정위원회 위원장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ㅁ
- ③ ㄴ, ㄷ, ㄹ
- ④ ㄷ, ㄹ, ㅁ
- ⑤ ㄴ, ㄷ, ㄹ, ㅁ

9.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의한 영업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상 손실이나 주식 등 권리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의 범위에 속한다.
- ㄴ.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되어 받게 되는 보수가 기존의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정한 구「공무원연금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
- ㄷ.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정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경유차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ㄹ.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조항 중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의 위헌성은 헌법상 재산권인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한 것 자체에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10.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한 현행 「헌법재판소법」의 규정 중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 ㉠ )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 ㉡ )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 ㉢ )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 ㉣ )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	㉢	㉣
①	60일	180일	30일	14일
②	60일	180일	14일	30일
③	90일	180일	14일	30일
④	90일	1년	30일	14일
⑤	90일	1년	30일	30일

11. 예산과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3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5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연한을 정하지 않고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 지출할 수 있다.
- ④ 국회는 정부의 동의를 얻더라도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⑤ 국회가 의결한 예산 또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은 국가기관을 구속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12.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상임위원·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 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3.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재판부는 재판관 과반수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 ②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③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함이 원칙이다.
- ⑤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4.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한 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과 그 가족의 신변 안전 및 주거 평온을 확보하고,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②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이하 ‘야간옥외집회’라 한다)를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은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 ③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률조항에는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이 공존하고 있는데, 입법자로 하여금 어떠한 경우 옥외집회·시위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지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재량을 존중하는 것이다.
- ④ 집회의 자유는 집회를 통하여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유를 포함한다.
- ⑤ 관할 경찰서장이 9회에 걸쳐 옥외집회신고서를 반려한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법률의 근거 없이 청구인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15. 국회의 의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상 의사공개원칙은 단순한 행정적 회의를 포함하여 국회의 헌법적 기능과 관련된 모든 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본회의는 공개하나,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국민은 헌법상 보장된 알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국회에 대하여 입법과정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

16. 역대 헌법상의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헌헌법에서는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헌법위원회를 두었고 그 권한은 위헌법률심사에 한정되어 있었다.
- ② 1960년 제3차 개정 헌법은 헌법재판소를 상설기구로 하였는데, 법률의 위헌여부심사,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 정당의 해산, 탄핵재판, 대통령·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 등을 그 관할로 하였다.
- ③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은 헌법재판에 속하는 사항 중 위헌법률심사와 정당해산심판, 선거소송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탄핵심판위원회가 이를 담당하게 하고, 권한쟁의심판제도는 두지 아니하였다.
- ④ 1972년 제7차 개정 헌법은 헌법위원회를 두었고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을 관할하였다.
- ⑤ 1980년 제8차 개정 헌법은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헌법위원회에 그 심사를 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17.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헌법 제36조제1항은 혼인과 가족에 관련되는 공법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원리 내지 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사법의 영역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 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 가운데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를 합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립묘지에 안장 대상자와 합장될 수 있는 권리를 소멸시킴으로써 재혼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헌법 제36조제1항에 위배된다.
- ㄷ.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로 헌법상에 명시되지 않은 독자적인 기본권이다.
- ㄹ.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상 ‘금혼조항’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나, 금혼조항을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상 ‘무효조항’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ㄷ, ㄹ

18. 헌법 전문(前文)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전문은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에서 최초로 개정되었다.
- ② 헌법 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이지만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은 될 수 없다.
- ③ 현행헌법 전문은 조국의 민주개혁과 경제의 민주화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④ 헌법 전문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더라도 이로부터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국가의 헌법적 의무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 ⑤ 현행헌법은 전문에서 헌법의 동일성과 연속성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유신헌법에 근거를 둔 긴급조치의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은 유신헌법 및 현행헌법이 될 수 있다.

19.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대통령이 위헌적인 재신임 국민투표를 단지 제안만 하였을 뿐 강행하지는 않았으나,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국민들에게 제안한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 제72조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ㄴ.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ㄷ. 대통령이 발한 긴급명령이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그 명령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ㄹ.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국회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의 권한에 관해서는 조치를 할 수 없다.
- ㅁ.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 대통령은 정부에 이송된 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국회가 폐회 중이거나 입법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불가하다.

	ㄱ	ㄴ	ㄷ	ㄹ	ㅁ
①	O	O	X	O	O
②	O	O	X	X	X
③	O	X	O	X	X
④	X	O	X	X	X
⑤	X	X	X	O	X

20. 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조례 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는데, 여기서 법령은 형식적 법률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뿐만 아니라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행정규칙까지 포함한다.
- ② 주민투표권이나 조례제정·개폐청구권은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에 해당하고,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거나 헌법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로 보기 어렵다.
- ③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는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한하며,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
- ④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⑤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 한국사

## 1. 밑줄 친 '이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 시대의 문화 유적으로는 고인돌을 비롯하여 돌널무덤, 돌무지 무덤, 집자리 등이 있다. 또한 이 시대를 대표하는 민무늬 토기는 빗갈이 적갈색을 띠고 있으며 형태가 매우 다양한 점이 특징이다.

- ① 주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생활하였다.
- ② 방추를 이용하여 베나 옷감을 짜기 시작하였다.
- ③ 가까운 사람을 함께 매장하는 순장 풍습이 있었다.
- ④ 곡식의 이삭을 자르기 위한 반달형 돌칼이 사용되었다.
- ⑤ 곡식을 저장하기 위해 주로 빗살무늬 토기를 이용하였다.

## 2. 다음 법이 있었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살인한 자는 죽이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 도둑질한 자는 열두 배로 갚으며, 남녀가 음탕하거나 부인이 투기하면 모두 죽인다. 특히 투기를 미워하여 죽이고 나서 시체를 수도의 남쪽 산 위에 두고 썩힌다. 여자 집에서 그 시신을 가져가려면 소나 말을 바쳐야 내준다.

- 『삼국지』 위서 동이전 -

- ① 천군이 나라의 제사를 주관하였다.
- ② 한 무제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였다.
- ③ 호랑이를 신으로 섬기고 제사를 지냈다.
- ④ 왕과 지배층이 국동대혈에 모여 제사를 지냈다.
- ⑤ 호민이라는 지배층과 하호라는 피지배층이 있었다.

## 3. 다음 ㄱ~ㄹ을 제작한 시기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ㄱ. 첨성대  
ㄴ. 광개토왕릉비  
ㄷ.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ㄹ. 정혜공주묘

- ① ㄱ→ㄴ→ㄷ→ㄹ
- ② ㄱ→ㄴ→ㄹ→ㄷ
- ③ ㄴ→ㄱ→ㄷ→ㄹ
- ④ ㄴ→ㄱ→ㄹ→ㄷ
- ⑤ ㄷ→ㄴ→ㄱ→ㄹ

## 4. 고려의 전시과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급한 토지의 권리는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이였다.
- ② 개정을 거듭하면서 등급별 지급 액수는 조금씩 늘어났다.
- ③ 전지(농지)뿐 아니라 땔감을 채취하는 시지도 함께 지급하였다.
- ④ 5품 이상의 고위 관리에게는 공음전을 따로 주는 경우가 있었다.
- ⑤ 토지를 받은 사람이 퇴임하면 나라에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 5. ㉠의 종교 또는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죽은 사람 앞에 술과 음식을 차려 놓는 것은 ㉠에서 금하는 바입니다. 살아 있을 동안에도 영혼은 술과 밥을 받아 먹을 수 없거늘 하물며 죽은 뒤에 영혼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육신의 입에 공급하는 것이요, 도리와 덕행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비록 지극한 효자라 할지라도 맛 좋은 것이라 하여 부모가 잠들어 있는 앞에 차려 드릴 수 없는 것은 잠들었을 동안은 먹고 마시는 때가 아닌 까닭입니다. 잠시 잠들었을 때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영원히 잠들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 정하상, 『상제상서』 -

- ① ㉠동경대전크을 기본 경전으로 삼았다.
- ② ㉠주자가례크에 따라 의례를 실천하였다.
- ③ 갑오개혁 이후 신앙의 자유를 얻었다.
- ④ 임술 농민 봉기의 사상적 뒷받침이 되었다.
- ⑤ 황사영 백서 사건을 계기로 심한 탄압을 받았다.

## 6. 다음 주장을 한 인물이 쓴 글로 옳은 것은?

대체 천자는 어찌하여 있게 되었는가? 다섯 가(家)가 하나의 인(隣)이 되는데, 다섯 가의 추대를 받은 자가 인장(隣長)이 될 것이며 …… 다섯 인이 일 리(里)가 되는데 다섯 인의 추대를 받은 자가 이장(里長)이 될 것이며 …… 여러 현의 우두머리들의 공동 추대를 받은 자가 제후가 될 것이며, 제후들의 공동 추대를 받은 자가 천자가 될 것이므로, 천자란 무릇 군중이 밀어서 그 자리에 오른 것이다.

- ① 국가는 한 집의 재산을 계산하여 토지 몇 부(負)를 한 호의 영업전으로 한다.
- ② 비유하건대, 재물은 대체로 샘과 같다. 퍼내면 차고, 버려 두면 말라 버린다.
- ③ 30호 정도를 1여(閭)로 만들고, 여민(閭民)이 여(閭)의 토지를 공동으로 경작하도록 한다.
- ④ 천체가 운행하는 것이나 지구가 자전하는 것은 그 세가 동일하니, 분리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
- ⑤ 정통은 단군·기자·마한·신라 문무왕·고려 태조를 말한다.

## 7. 다음 사건을 시기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ㄱ. 이성계가 '4불가론'을 왕에게 건의  
 ㄴ. 공양왕 즉위  
 ㄷ. 원으로부터 쌍성총관부 탈환  
 ㄹ. 과전법 공포

- ① ㄱ→ㄴ→ㄷ→ㄹ  
 ② ㄱ→ㄷ→ㄹ→ㄴ  
 ③ ㄴ→ㄱ→ㄷ→ㄹ  
 ④ ㄷ→ㄱ→ㄴ→ㄹ  
 ⑤ ㄹ→ㄷ→ㄱ→ㄴ

## 8. 밑줄 친 '원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만리 출정에서 성공하는 것은 세상에 드문 일이거늘  
 나그네 마음은 어찌하여 다시 긴 한숨인가.  
 이번 원정은 심하(深河)의 전쟁과 달라  
 김공(金公)\*이 죽어 돌아오지 못함이 오히려 부럽도다.

- 신류 장군이 전쟁 후에 지은 시 -

\* 김공(金公): 강홍립과 함께 심하 전투에 참여했다가 목숨을 잃은 김응하(1580~1619)를 일컫는다.

- ① 청의 요구로 조선의 조총 부대가 동원되었다.  
 ② 4군과 6진을 개척하는 계기가 되었다.  
 ③ 삼전도에서 인조가 항복의식을 하였다.  
 ④ 임경업이 백마산성에서 항전하였다.  
 ⑤ 조명 연합군이 평양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 9. 밑줄 친 '화의(和議)'의 결과로 옳은 것은?

성종이 서경(西京)으로 가서 안북부(安北府, 안주)까지 나아가 머물렀는데, 거란(契丹)의 소손녕(蕭遜寧)이 봉산군(蓬山郡)을 공격하여 파괴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더 가지 못하고 돌아왔다. 서희(徐熙)를 보내 화의(和議)를 요청하니 …….

- 『고려사』 -

- ① 북방 지역에 천리장성을 쌓기 시작하였다.  
 ② 압록강 인근까지 영토가 확장되었다.  
 ③ 퇴각하는 거란군을 귀주에서 크게 격파하였다.  
 ④ 거란이 사신과 함께 낙타 50필을 보내왔다.  
 ⑤ 거란은 내원성을 쌓아 고려와 송의 교통로를 차단하였다.

## 10. ㉠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왕이 ㉠이/가 자주 강역을 침략하는 것을 근심하여 수 나라에 군사를 요청하여 ㉠을/를 정벌하고자 원광(圓光)에게 명하여 결사표(乞師表)를 짓게 하였다. 원광이 아뢰기를, “자기가 살고자 남을 죽이는 것은 승려가 할 행동이 아닙니다만, 저는 대왕의 영토에서 살며 대왕의 물과 풀을 먹고 있으므로 감히 명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곧 결사표를 지어 올렸다.

- 『삼국사기』 -

- ① 단양에 적성비를 세웠다.  
 ② ㉠신집꺄이라는 역사서가 있었다.  
 ③ 황초령, 북한산 등에 순수비를 세웠다.  
 ④ 평양성을 공격해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  
 ⑤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었다.

## 11. 밑줄 친 '왕'이 추진한 일로 옳은 것은?

원년 2월에 왕이 명하기를, “옛날에 소금을 전매하던 법은 국가 재정에 대비하려는 것이었다. 본국의 여러 궁원·사사(寺社)와 권세가들이 사사로이 염분(鹽盆)을 설치하여 그 이익을 독점하고 있으니 국가 재정을 무엇으로써 넉넉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 소금을 쓰는 자는 모두 의염창에 가서 사도록 하고, 군현 사람들은 모두 본관의 관사에 나아가 포를 바치고 소금을 받도록 하라. 만약 사사로이 염분을 설치하거나 몰래 서로 무역하는 자가 있으면 엄히 죄로 다스려라.”고 하였다.

- 『고려사』 -

- ① 원의 수도에 만권당을 설치하였다.  
 ② 광덕, 준풍 등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③ 급전도감을 설치하고 녹과전을 지급하였다.  
 ④ 신돈을 등용하고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⑤ 전국에 12목을 두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12.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을/를 필두로 김사용, 우군칙, 김창시와 장사인 홍총각, 부유한 상공업자인 이희저 등이 반란군의 지휘부를 구성하였다. 반란군은 정주성에 들어가 4개월 가까이 관군과 대치하다가 성이 함락되면서 진압되었다.

- ① ‘임술민란’이라고도 불린다.
- ② 명화적(明火賊)의 활동을 계승하였다.
- ③ 교조(敎祖)의 신원(伸冤)을 요구하였다.
- ④ 서북 지방에 대한 차별의 타파를 내세웠다.
- ⑤ 삼정이정청 설치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13. 다음 상황이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신축·임인년 이래로 조정에서 노론, 소론, 남인의 삼색이 날이 갈수록 더욱 사이가 나빠져서 서로 역적이란 이름으로 모함하니 이 영향이 시골에까지 미치게 되어 하나의 싸움터를 만들었다. 그리하여 서로 혼인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당색끼리는 서로 용납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 이중환, 『택리지』 -

- ① 비변사의 기능이 약화되었다.
- ② 외척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였다.
- ③ 국왕을 중심으로 탕평책이 시행되었다.
- ④ 경신환국 이후 특정 붕당의 득세 현상이 강해졌다.
- ⑤ 기축옥사 및 건저의 사건으로 붕당 간 대립이 심화되었다.

14. 다음 주장을 편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존주(尊周)\*는 존주 그대로이며, 이적(夷狄)\*\*은 이적 그대로이다. 주나라와 이적은 반드시 분별이 있다. 이적이 중화를 어지럽혔다 하여 주나라의 오랜 전통마저 배척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 청나라가 천하를 차지한 지 1백여 년이 지났다. ……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오랑캐라 하고 중국의 법마저 함께 폐기해 버린다면 크게 옳지 못하다. 진실로 백성에게 이롭다면 그 법이 비록 오랑캐에게서 나왔다 하더라도 성인은 장차 취할 것이다.

-「존주론」-

\* 존주(尊周): 문명화된 중화    \*\* 이적(夷狄): 오랑캐

- ① 지전설을 제기하였다.
- ② 여전론을 제안하였다.
- ③ 『북학의』를 저술하였다.
- ④ 위정척사운동을 전개하였다.
- ⑤ 화폐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15.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일제는 회사령을 공포하여 일본 자본의 과도한 조선 진출을 막는 동시에 조선인 자본가의 성장을 막고자 하였다.  
(나)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제는 전쟁 물자의 효율적 생산과 안전한 수송을 위하여 조선 공업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 ①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되었다.
- ② 학도지원병제를 실시하였다.
- ③ 물산장려운동이 전개되었다.
- ④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광복군을 결성하였다.
- ⑤ 중국에서 조선의용대가 결성되었다.

16. 다음의 내용을 주장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만국공법」 제2장에 따르면 “한 나라는 반드시 국토를 독점적으로 관할하여 통제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국가는 토지, 물산, 민간 재산 등을 관리할 권한을 가지며, 다른 나라는 이 권리를 함께 가질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는 비록 토지를 관할하는 전권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이를 타국에게 매각할 수는 없다. 이는 한 나라가 공유하는 권리이지 한 사람이 사유하는 권리가 아니다. ……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일본 공사의 도리에 어긋난 행동은 고금에 없었으며, 공법을 살펴보면 모든 일이 다 어그러지고 위배되어 그 비루함이 만 배나 더 심합니다.

- 『황성신문』, 1904. 7. 23. -

- ① 민족 유일당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②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 반대하였다.
- ③ 양전 사업을 시행하여 지계를 발급하였다.
- ④ 국채를 갚아 일본의 경제적 간섭에서 벗어나려 하였다.
- ⑤ 외국 공사관에 문서를 보내 일본의 토지 침탈을 규탄하였다.

## 17.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온달이 왕에게 아뢰었다. “신라가 우리 한강 북쪽 땅을 빼앗아 군과 현으로 만들었으므로, 백성들이 원통하여 언제나 부모의 나라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대왕께서 불초한 신을 어리석게 여기지 마시고 군사를 주신다면, 한번 나가 싸워서 반드시 우리의 땅을 회복하겠습니다.” 왕은 이를 허락했다.

- 『삼국사기』 -

(나) 역적의 우두머리 흠돌, 흥원, 진공 등은 지위가 재능으로 오른 것이 아니고 관직이 실로 은혜로써 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근신하여 부귀를 보전하지 못하였다. …… 지금 이미 요망한 무리들이 말끔하게 제거되어 먼 곳이나 가까운 곳 모두에 걱정거리가 없게 되었으니, 불러 모은 군사와 말들을 마땅히 신속하게 돌려보내라.

- 『삼국사기』 -

- ① 진흥왕이 북한산 순수비를 세웠다.
- ② 장문휴가 군사를 이끌고 등주를 공격하였다.
- ③ 장수왕이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 ④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군에게 목숨을 잃었다.
- ⑤ 을지문덕이 수의 군대를 살수에서 크게 무찔렀다.

## 18. (가), (나)의 헌법 개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lt;보기&gt;에서 모두 고르면?

구분	개헌 연도	주요 내용
(가)	1962	대통령 직선제 시행, 헌법 개정 시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 실시, 헌법재판소 폐지
(나)	1987	직선제를 통한 5년 단임 대통령제 시행, 비상조치권 및 국회해산권 폐지, 헌법재판소 부활

— < 보 기 > —

- ㄱ. (가)는 ‘발췌 개헌’이라고도 한다.  
 ㄴ. (가)에서는 국회를 단원제로 하였다.  
 ㄷ. (나)는 6월 민주 항쟁을 계기로 개정하였다.  
 ㄹ. (나) 개헌은 국가 재건 최고 회의에서 주도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 19. 다음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 세력은 이념의 차이로 인하여 한국광복군에 편입되지 못하였다.  
 ㄴ. ‘한국광복군 행동 9개 준승’으로 인하여, 한국광복군은 해방 때까지 중국 군사 위원회의 지휘를 받아야만 했다.  
 ㄷ.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1년 12월, 일본에 정식으로 선전 포고를 하였다.  
 ㄹ. 일본의 항복 선언 직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을 중심으로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 ① ㄴ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ㄷ, ㄹ

## 20. 다음 주장을 발표한 기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보통선거제를 실시하여 정권을 고르게 하고, 국유제를 채용하여 이권을 고르게 하고, 공비 교육으로 학권을 고르게 하며, 국내외에 대하여 민족자결의 권리를 보장하여 민족과 민족 및 국가와 국가의 불평등을 없앨 것이며, 이를 국내에 실현하면 특권 계급이 곧 소멸하고, 소수 민족이 침략당하는 일을 모면하고,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권리가 고르게 되어 높낮이가 없어지니, 동족과 이민족에 대하여 또한 이렇게 한다.

- ①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하였다.
- ②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을 강령으로 활동하였다.
- ③ 중국 팔로군과 화북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였다.
- ④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조사하고 지원하였다.
- ⑤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 행정법총론

### 1.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설령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도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 ② 고등훈련기 양산참여권의 포기대가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세금이 면제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국방부장관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검토의견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③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④ 신뢰보호의 원칙에 있어서 신청을 요하는 행정행위와 관련하여 개인의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조례안이 지방의회의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5급 이상 공무원인지 여부, 기관(법인)의 대표나 임원인지 여부 등 증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미리부터 과태료의 액수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경우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고 지위의 높고 낮음만을 기준으로 한 부당한 차별대우라고 할 것이어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2.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② 행정처분의 권한을 내부적으로 위임받은 수임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내부적 성립과정을 스스로 결정하여 행할 수 없고 위임기관의 결정에 따라 행할 수 있다.
- ③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이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 ⑤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 3.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 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 ②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건축법」상 건축신고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 ④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데 그치는 것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⑤ 인허가의제 제도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 4. 행정소송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건축허가권자가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구「소방법」에 따른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건축법」상의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소방서장의 부동의 사유에 관하여도 다룰 수 있다.
- ②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위장사업자의 사업자명의를 직권으로 실사업자의 명의로 정정하는 행위는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은 가져오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
- ③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④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에 대하여만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⑤ 행정청이 재결에 따라 이전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후속처분을 하였더라도 후속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곧바로 후속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다룰 수 있다.

5. 행정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 ② 행정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은 비록 형식상은 확인판결이라 하여도 그 확인판결의 효력은 그 취소판결의 경우와 같이 소송의 당사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미친다.
- ③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나,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④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과세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그 뒤에 과세관청에서 그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을 경정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 ⑤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도 행정청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지 허용된다.

6.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심판의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다.
- ② 심판청구기간은 취소심판청구와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만 적용되고, 무효등확인심판청구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③ 「행정소송법」과는 달리 「행정심판법」은 임시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 ④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 ⑤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7.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시료채취의 방법 등이 시료채취의 방법 등을 규정한 고시에서 정한 절차에 위반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그에 기초하여 내려진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 ②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행정기관이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장부제출명령, 출두명령 등 행정행위의 형식을 취하는 행정조사는 물론 사실행위로서의 행정조사도 권력적인 경우에는 항고소송으로 다룰 수 있다.

8.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도적 행정계획과 정보제공적 행정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 ②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 ③ 행정청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폐지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
- ④ 도시계획의 입안에 있어 해당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공고 및 공람하게 한 것은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권리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사를 그 과정에 반영시키는데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공고 및 공람 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결정은 위법하다.
- ⑤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되면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권리행사가 일정한 제한을 받지만,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특정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9.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 ②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③ 재량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상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고 설령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 ④ 행정처분에 이미 부담이 부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는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 ⑤ 부관이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경우 부관에 위법한 사유가 있다면 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관만 위법하게 된다.

10.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② 허가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과 처분을 받은 자가 어 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의 적시를 요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의 적시를 흠결한 하자는 그 처분 후 적시되어도 이에 의하여 치유될 수는 없다.
- ③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④ 「행정절차법」은 확약에 대하여 문서 또는 말로써 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 ⑤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있어서까지 그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11.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귀화신청인이 구「국적법」에서 정한 귀화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은 귀화 허부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재량권 행사 결과에 따라 귀화불허처분을 할 수 있다.
- ②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으로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절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다.
- ③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④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 용도변경승인은 특정인에게만 용도 외의 사용을 허용해주는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다.
- ⑤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12.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 ② 지방국세청장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조세범처벌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였더라도, 지방국세청장으로서의 해당 조세범처벌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
- ③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 ④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넘어 운행한 자가 등록된 차량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과태료의 제재만을 받게 되겠지만, 무등록 차량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과태료와 별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 ⑤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의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13.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해당 행정청 또는 감독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 ④ 행정청의 처분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14. 행정상 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②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 ③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수단에 해당한다.
- ④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통지는 통지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⑤ 행정청은 직접강제를 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강제를 한다는 뜻을 문서로 게고하여야 한다.

15.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서 피보상자별로 여러 가지의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의 손실에 관하여 심리·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피보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재결 전부에 관하여 불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진다.
- ③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급되거나 지급될 보상금, 의료보호, 교육보호 등의 혜택을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 ④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전보상을 하지 않은 채 공사에 착수함으로써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입은 손해는 손실보상청구권이 침해된 데에 따른 손해이므로 사업시행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금이다.
- ⑤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는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당사자소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16.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경우 그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③ 법률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이 법률의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
- ④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대통령령 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 ⑤ 시행령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헌 내지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17.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 ② 게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게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 ③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 ④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도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룰 수 있다.
- ⑤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야 한다.

18.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보 기 > —

- ㄱ. 국유일반재산을 대부하는 행위
- ㄴ.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
- ㄷ.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청의 사용·수익허가
- ㄹ.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전대하는 행위
- ㅁ. 법령에 근거한 행정기관 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치

- ① ㄱ, ㄴ
- ② ㄱ, ㄷ, ㅁ
- ③ ㄴ, ㄷ, ㅁ
- ④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1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라도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공개하여야 한다.
- ④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청구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감면할 수 없다.
- ⑤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20.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②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기간까지 존속하다가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장래에 향하여 당연히 소멸한다.
- ③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한 경우 그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 ④ 취소소송의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의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
- ⑤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